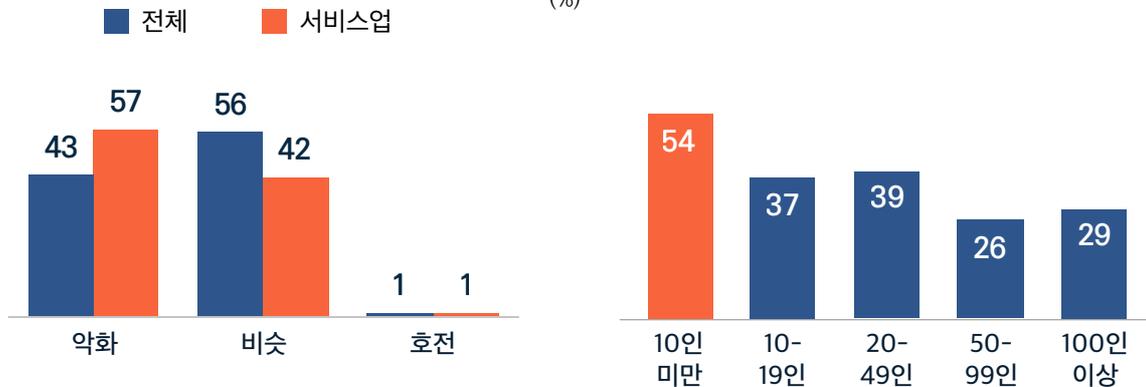


3 중소기업 5곳 중 2곳, 코로나19로 인해 체감 경기 '악화'

- 이번 코로나19 사태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, 그 주요 결과를 보면, 코로나19 확진자 발생(1월 20일)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체감 경기에 대해 '악화' 43%, '비슷' 56%, '호전' 1%로, '호전'에 비해 '악화'되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음
- 업종별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,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업보다는 숙박/음식업에서 '악화' 인식이 높고,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서 특히 '악화'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전과 비교한 체감 경기** [그림] 종업원수별 체감 경기(전체), '악화' 비율**(%)



*자료출처 : 중소기업중앙회, '코로나19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', 2020.02.10.
 (중국 수출입 또는 현지 법인 보유 중소기업과 국내 도소매/서비스 중소기업 250개, 전화 조사, 2020.2.4-2.5)
 ** 5점 척도 문항으로 '악화'는 '매우 악화+다소 악화' 합한 수치이고 호전은 '매우 호전+다소 호전'을 합한 수치임

● 숙박/음식업의 61%가 코로나19로 인해 '타격 받고 있다'

- '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(피해)을 받고 있는지 묻은 결과, '받고 있다' 34%, '받고 있지 않다' 60%로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실제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업종별로는 숙박/음식업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- '중국 수출입이 있는 기업'이 '중국과 수출입 없는 기업'보다 타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코로나19로 인한 타격(피해) '받고 있다' 비율 (%)



*자료출처 : 중소기업중앙회, '코로나19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', 2020.02.10.
 (중국 수출입 또는 현지 법인 보유 중소기업과 국내 도소매/서비스 중소기업 250개, 전화 조사, 2020.2.4-2.5)